

# 張子和의 刺血法이 後世醫學에 미친 影響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金軍 · 尹暢烈\*

## 張子和의 刺血法對後世醫學的 影響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金軍 · 尹暢烈

本課題從臨床實踐角度探討了張子和刺血法對後世醫學的影響. 文中羅列從元, 明, 清至現代的19位醫家用刺血法治療疾病的經驗, 無論從病種, 病位, 用穴和針刺工具方面, 在張子和基礎上都有了很大發展. 特別是在外科和喉科方面, 更是豐富多彩, 顯示了此療法的生命力. 通過本科題的研究得出如下結論. 張子和在外科擅長取患部放血, 經元, 明, 清, 沿用到今天, 是張氏影響力的最大證明. 其次, 張子和之後的明代, 外科運用刺血法的病種大增, 包括疔瘡, 時毒, 發背, 腦疽, 偷針疔, 五癭, 緣唇瘡, 癰瘍等, 發展了張氏之學. 尤其在喉科, 出現繼承與發展的明顯軌跡, 張子和用少商, 患部治喉痺, 至明代增加十宣, 三商, 清代增加曲池, 委中, 陽交, 間使, 大陵, 到現代則再增加耳穴, 大椎, 天柱等.

關鍵詞: 張子和, 刺血法, 後世醫學, 影響.

起疾救死多取效”<sup>1)</sup>라고 칭송하고 있다. 張氏의 著書

## I. 緒論

張子和는 金元四大家중의 한사람으로서 임상에서 攻邪法을 잘 活用한 醫家이며, 金元時代 醫學의 創新과 發展에 대하여 卓越한 貢獻을 한 醫學家이다. 張子和의 이름은 從正이고 字는 子和이며 金代 睢州 考城(지금의 河南省 蘭考縣) 사람이다. 대략 서기 1156~1228年 동안 살았다. 張氏의 學問은 「內經」, 「難經」, 「傷寒論」을 宗奉하고 아울러 劉河間을 私淑했으며, 임상에 있어서 汗, 吐, 下 三法의 運用에 독창적인 견해가 있었고, 풍부한 치료경험도 쌓았다. 張氏는 한의학의 祛邪學說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金史·本傳」에 그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높아 “精於醫 貫穿素難之學 其法宗劉守眞 用藥多寒涼 然

에 「儒門事親」一書 十五卷이 있으나 그 혼자 쓴 것이 아니고 그중 어떤 내용은 그 당시 사람인 麻知幾, 常仲明 두 사람이 윤색하고 纂輯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張子和는 「黃帝內經」과 劉河間의 “火熱論”의 영향을 받아 과감히 실천하고 創新을 했으며 刺血法을 하여금 이론과 임상에서 모두 前에 없었던 발전을 얻게 하였다. 張氏가 汗, 吐, 下의 三法을 사용하여 邪氣를 제거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藥物治療의 方面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儒門事親」의 내용을 고찰해볼 것 같으면 그는 「黃帝內經」의 이론과 처방, 그리고 劉河間의 “火熱論”의 사상을 계승하여 刺血法을 運用하여 많은 질병을 치료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형편이

\* 교신저자: 윤창열,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042) 280-2601, yooncy@dju.ac.kr

1) 裘沛然. 中醫歷代名家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 83.

다. 張氏는 刺血法을 內科, 眼科, 口腔咽喉科, 外科 및 小兒科 등 臨床各科의 病證治療에 廣範이 사용하였고, 치료한 병의 種類는 瘧疾, 雷頭風, 抽搐, 腎風, 嗽血, 面腫風, 大暑, 目疾, 喉痺, 舌腫, 背疽, 瘰癧, 濕癬, 瘤, 膠瘤, 面赤腫, 眉煉 및 丹瘤 등이 있다. 특히 張子和의 刺血療法の “三多” 特徵은 後世醫家들에 대해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저자는 臨床에서 刺血法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元, 明, 清代 및 現代의 19명 醫家들의 刺血法으로 臨床病症을 治療한 相關 文獻資料를 考察하고, 後世醫家들이 張子和의 學術思想을 繼承하고 發展시킨 痕跡(軌跡)을 찾아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論

### 1. 金元時期부터 明清時期까지

#### 1) 李杲

李杲(서기1180~1251年)의 字는 明之이고 晚號가 東垣老人이며 金代 眞定(지금의 河北省 正定市)사람이다. 그는 金元四大家中的 한사람으로서 脾胃와 元氣의 關係에 대하여 중요한 發明을 하여 “內傷脾胃, 百病由生”이란 學術觀點을 제시하여 독보적인 경지에 이르렀다.

李東垣은 刺血法을 虛證과 實證의 치료에 廣範하게 應用하였다. 예를 들면 痿症, 目眶赤爛, 眼生倒睫, 拳毛, 偏枯, 弔旗, 中風無汗惡寒, 腰痛, 癰風, 吐血舊不愈, 惡瘡, 疫癘, 胃病 등 여러 病證治療에 사용하였다. 그가 刺血法을 應用하여 病을 치료할 때 張子和처럼 放血量을 많이 하였고 사용한 針의 個數도 많았다.

『名醫類案卷二火熱篇』에 “東垣治參政年近七十, 春間病面顏鬱赤, 若飲酒狀, 痰稠粘, 時眩暈, 如在風雲中. 又加目視不明, 李診兩寸洪大, 尺弦細無力, 此上熱下寒明矣. 欲葯之寒涼, 爲年高氣弱不任, 記先師所論, 凡治上焦, 譬猶鳥集高巔, 射而取之, 卽以三稜針於顛前眉際疾刺二十餘, 出紫黑血約二合, 許時, 覺頭目清利, 諸苦皆去.”<sup>2)</sup>라고 記載되어 있는데, 이 醫案의 내

용으로부터 살펴보면 李東垣은 刺血法으로 瀉血할 때 刺鍼 個數와 放血量이 모두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東垣試效方』에 偏枯治療에 관한 醫案에 “陝帥郭巨濟, 病偏枯, 二指著足底不能伸. 迎先師於京師治之. 至則以長針刺委中, 深至骨而不知痛, 出血一二升, 其色如墨.”<sup>3)</sup>이라 記載하였는데, 이 역시 放血量이 매우 많았다.

李氏는 刺血法의 使用範圍를 더 擴充하여 實證뿐만 아니라 어떤 虛症의 치료에도 應用하였다. 예를 들면 “脾胃虛弱, 感濕成痿”한 病證에 대하여 足陽明胃經의 足三里, 氣街穴에 三稜針으로 點刺出血시키 치료하였고, 만약 치료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胃經의 上廉穴에 出血시켜 치료하였다.

#### 2) 羅天益

羅天益은 字가 謙甫(서기1220-1290년)이고 眞定(지금의 河北省 保定市)사람이며 東垣의 弟子로서 東垣의 門下에서 十數年동안 지내며 그의 학문을 모두 傳授받았다.

羅氏가 著述한 『衛生寶鑑』에 刺血法에 관한 內容이 記載되어 있다. 예를 들면 『卷二十二風痰治驗』에 “한 患者가 ‘忽病頭旋眼黑, 目不見物, 心神煩亂, 兀兀欲吐, 復不吐, 心中如懊懣之狀, 頭偏痛, 微腫而赤色, 腮頰亦赤色, 足脛冷’한 증상이 있어 羅氏는 ‘高巔之上, 射而取之’라는 觀點에 根據하여 三稜針으로 머리위의 二十餘 곳에 刺針하여 紫黑色의 血을 放出시키자 症狀이 신속하게 減退되었다”<sup>4)</sup>고 記錄되어 있다. 이 醫案에서 기록된바와 같이 羅氏의 刺血法도 사용한 針數가 아주 많고 張子和의 刺血法과 아주 類似하다.

또한 腳氣病으로 인한 足脛腫의 치료에 대한 기록에서 羅氏는 “血實者宜決之”라는 觀點으로 足脛의 腫한 부위에 三稜針으로 針刺하여 出血시키자 “血突出高二尺餘”하고 “頃時腫消痛滅”<sup>5)</sup>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卷二十三上熱下寒治驗』에 “於腫上約五十餘

2) 江瑾. 名醫類案.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73.

3) 李東垣. 東垣醫集.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517.

4) 羅天益. 衛生寶鑑.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364.

5) 羅天益. 衛生寶鑑.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366.

刺, 其血紫黑如露露之狀, 頃時腫痛消散.”<sup>6)</sup>이라記載되어 있다.

咽腫痛의 치료할 때 羅氏는 역시 “砭刺腫上, 刺黑血出, 頃時腫勢大消”<sup>7)</sup>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張子和와 治療方法이 같다. 羅氏는 刺血法을 사용할 때 三稜針을 자주 썼으며 그가 針刺한 部位와 出血量은 張子和와 완전히 같다.

羅氏는 中風無汗惡寒證을 치료할 때 至陰穴을 취하였고, 頭面赤腫을 치료할 때 患部에 刺針하였으며, 衄血吐血이 오래 동안 치료되지 않을 때는 氣衝에 刺針하여 出血시켰고, 瘡瘍도 역시 患部에 刺針하여 出血시켜 치료하였다.

3) 朱震亨

朱震亨은 字가 彥修(기원1281~1358년)이고 婺州 義烏(지금의 浙江省 義烏市)사람이다. 金元四大家中的 한사람으로서 生家가 丹溪에 있어서 후인들이 丹溪翁으로 尊稱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즐겨했는데, 30세에 비로소 『素問』을 연마하고 후에 名醫 羅知悌로부터 受學하였다. 羅氏는 劉完素의 再傳弟子로 張從正, 李杲의 학술도 두루 통했으므로 따라서 丹溪가 의학을 함에 經旨를 발휘하고 哲理를 參考 補充하여 諸家의 사상을 융합하고 아울러 임상경험과 결합시켜 새로운 說을 장립하였다.

朱氏는 刺血法을 응용할 때 瀉만하고 補를 하지 않았다. 『丹溪心法』<sup>8)</sup>에 三稜針으로 委中을 刺鍼出血시켜 癰風과 瘀血腰痛을 치료한다는 내용이記載되어 있다. 『脈因證治』<sup>9)</sup>에는 三稜針으로 氣衝穴에 刺針出血시켜 吐血病을 치료하고, 少商穴에 刺針出血시켜 喉痺를 치료하다는 여러 내용이 紀錄되어 있다. 『格致餘論』에 痛風을 치료한 醫案이記載되어 있는데 “鄰鮑六, 年二十餘, 因患血痢, 用澁葯取效, 後患痛風, 叫號撼鄰, 予視之曰: 此惡血入經絡證, ……遂與四物湯加桃仁, 紅花……又與刺委中出血黑近三合而

安.”<sup>10)</sup>이라 하였다.

4) 汪機

醫家	常見病의 治療	비고	
李杲	痿: 三裏, 氣街, 上巨虛 胃病: 足三裏 中風無汗惡寒: 至陰 眼生倒睫拳毛: 內眥 目眶赤爛: 目眶外 吐血久不愈: 氣街	偏枯: 委中 癰風: 患部 疫癘: 患部 惡瘡: 患部	虛症과 實證에 사용하였다.
羅天益	中風無汗惡寒: 至陰 衄血吐血: 氣衝 頭面赤腫: 患部 瘡: 患部	腳氣: 患部 咽腫: 患部 風痰: 頭	針刺部位가 많고, 出血量이 많으며, 三稜針을 사용하였다.
朱丹溪	癰風: 委中 吐血: 氣衝 喉閉: 少商	腰痛: 委中 痛風: 委中	實證에만 사용하였다.

표 1. 金元代醫家의 常見病에 대한 刺血治療方法

汪機는 字가 省之이고 別號는 石山이며 明代 安徽省 祁門(서기1463~1539년)사람이다. 처음에는 諸生으로 있다가 후에 그는 家族과 父母에게 孝道하려면 醫學을 모르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醫術을 공부하였다고 한다. 그의 학술은 대부분 丹溪를 추종하고 東垣說을 참조하였으며 자신의 의견도 주장하였다. 著書에 『醫學原理』, 『石山醫案』, 『外科理例』, 『痘疹理辨』, 『針灸問對』, 『醫讀』, 『運氣易覽』 등이 있다. 그중 『外科理例』는 鍼灸療法을 응용하여 外科疾患을 치료한 내용이 많이 기록된 專門著作이다. 이 책에 刺血法의 適應證에 대하여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頭面赤腫, 疔瘡, 喉痺, 丹毒 및 瘋犬所傷 등 證에 대한 치료내용이다.

汪氏는 張子和의 “祛邪即扶正”이란 觀點을 唱導하였고, 經典著書中에 言及한 補의 뜻에 대하여 “經中須有補法, 即張子和所謂祛邪實所以扶正, 去舊實所以生新意也.”<sup>11)</sup>라고 해석하였다.

外科疾患을 치료할 때 汪氏는 刺血法을 자주 운용

6) 羅天益. 衛生寶鑑.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367.  
7) 羅天益. 衛生寶鑑.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368.  
8) 朱震亨. 丹溪醫案.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181.  
9) 朱震亨. 丹溪醫案.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693.

10)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譯釋. 丹溪醫論. 1993. p. 44.  
11)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573.

하였는데, 예를 들면 그의 한 醫案에 “一婦六十, 右耳下天容穴間一疔, 其頭黑靨, 四邊宛起, 黃水時流, 渾身麻木, 發熱譫語, ……就用鈹針刺, 瘡心不痛, 周遭再刺十餘下, 紫黑血出, 方知疼痛.”<sup>12)</sup>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咽痛重症의 치료에 대하여 “刺患處出血最效, 否則不救. 針少商二穴亦可, 但不若刺患處之神速耳”<sup>13)</sup>라 하였다. 이는 張子和의 “大抵治喉痺, 用針出血最爲上策”이라는 見解와 一致한 것이다.

汪氏가 丹毒을 치료할 때 出血시키는 量은 張子和와 類似하였고 “一兒周歲患丹毒, 延及遍身如血染, 用磁鋒擊刺, 遍身出血黑”<sup>14)</sup>이라는 記錄이 있다.

#### 5) 李挺

李挺 (서기 16世紀)은 號가 健齋이고 지금의 江西省 市豐縣 사람이다. 그가 編撰한 『醫學入門』은 後世醫家에 대하여 아주 큰 影響을 주었다.

『醫學入門·內傷類·咽喉』에 記錄된 한 句節의 내용이 『儒門事親』중의 “火鬱發之, 謂發汗也. 咽瘡忌汗. 最不誤人, 惟砭針出血, 卽汗之義也, 血出多則愈. 有針瘡, 薑汁調熱水, 時時呷之”<sup>15)</sup>라고 한 내용과 類似하다. 즉 喉痺證은 發病部位에 刺血하여 치료하고 자주 生薑汁을 마시게 하면 상처가 빨리 아문다고 하였는데, 이런 방법은 張子和의 치료방법과 같다.

『雜病穴法』에 몇 가지 刺血法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赤眼腫痛, 迎香出血, 立愈”, “舌腫甚及重舌者, 更取舌下兩邊紫筋津液所出處, 以三梭針刺出其血”<sup>16)</sup>라고 하였다. 李氏가 火熱實證에 속하는 眼病과 舌病을 치료할 때 刺血한 部位는 張子和와 雷同하다.

그리고 李氏도 刺血法으로 絞腸沙(取十井), 丹毒(取患部), 偷針瘡(取患部), 太陽症(取委中), 解體(取十指, 委中. 本病은 似寒非寒하고 似熱非熱하며 四肢骨節이 解散하고 怠惰煩疼하며 飲食不美한 증상이 있다)등 病證을 치료하는데 應用하였다.

#### 6) 薛己

薛己(1486~1558年)는 字가 新甫이고 號는 立齋이며 明代 江蘇省 吳郡(지금의 江蘇省 蘇州)사람이다. 그는 어려서 家學을 이어 아버지 薛鎧에게서 醫學을 傳授 받았다. 젊은 나이에 外科로 소문이 나고 후에 內科, 婦人科, 小兒科등 臨床各科에 통달하였으며 학술적으로 諸家에 두루 통하였다. 그는 易水學派의 私淑者이고 또한 繼承者이다.

薛己의 著述은 豊富하고 그가 自著, 注釋, 輯集한 醫書가 모두 二十四種이나 되고 後人이 그의 저서와 評注한 책을 모아서 『薛立齋醫案』을 편찬하였다. 이 책에는 臨床各科의 내용이 모두 包括되어 있다.

薛氏는 砭刺法을 임상에서 자주 사용하여 外科疾病을 治療하였으며 治療經驗은 그가 著述한 『外科發揮』와 『外科樞要』등 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薛氏는 患者가 外科病에 걸려 膿이 생겼을 때 속히 毒氣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좋으며, 또한 膿을 제거하는데 刺血法을 應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放血하는 道具로 흔히 鈹針, 三梭針, 磁鋒 등을 사용하였다. 薛氏가 刺血法으로 치료한 外科病은 時毒, 疔瘡, 腳氣, 發背, 丹毒, 瘡疔, 腦疽, 癰瘍, 癩贅, 跌撲閃傷, 瘋犬所傷 등이 있다. 五官科病은 舌腫, 喉痺 등이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薛氏가 外科病의 치료할 때 刺血法을 廣泛하게 運用하였고 張子和의 經驗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한층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放血한 部位는 크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病變의 周邊이고, 둘째는 病變한 部位이며, 셋째는 經絡의 遠端이다. 病變한 周邊에 刺血하여 치료한 내용을 예를 든다면 『外科發揮』에 “針瘡四畔去惡血”, “若患在手足, 紅絲攻心腹者, 就於絲盡處, 刺去惡血”<sup>17)</sup>이라 記錄하였다.

病變한 部位에 刺血하여 치료한 내용을 예를 든다면 丹毒을 治療할 때 薛氏는 “丹有數種, 治有數法, 無如砭之爲善, 常見患稍重者, 不用砭法, 俱不救也.”<sup>18)</sup>라

12)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57.

13)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58.

14)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356.

15) 李挺. 醫學入門.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卷六. p. 323.

16) 李挺. 醫學入門.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卷六. p. 325.

17) 盛維忠. 薛立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25.

18) 盛維忠. 薛立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01.

하였으며, 또한 “一男子患丹毒, 焮痛便秘, 脈數而實, 服防風通聖散不應, 令砭患處, 去惡血, 仍用前藥即愈.”<sup>19)</sup>라고 한 醫案에 기록하였다. 薛氏는 前人之說을 引用하여 “瘰既成而甚, 砭去惡血, 而去其重勢. 經雲: 畜則腫熱, 砭射之後, 以藥治之.”<sup>20)</sup>라고 解釋하였다.

經絡의 遠端에 刺針하여 放血하는 것은 많은 醫家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다. 薛氏도 이런 방법을 아주 중요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少商에 刺血하여 咽喉腫痛을 치료할 때 그는 “嘗見此證, 不針刺, 多致不救”<sup>21)</sup>라 하였다. 薛氏가 喉閉를 치료할 때 少商穴을 取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局部에도 放血을 하였는데 이는 張子和의 치료방법과 같다.

薛氏는 虛證을 치료할 때 張子和처럼 刺血法을 아주 慎重하게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癰瘍機要』<sup>22)</sup>에 한 환자가 心虛證이 兼하여 있어 積刺 刺血法을 쓰지 않고 먼저 補藥을 복용하게 하여 “元氣漸復”한 후에 砭刺하였다고 記錄된 내용이 있다. 薛氏는 刺血할 穴位의 禁忌도 제출하였는데, 예를 들면 『口齒類要·舌症』에서 “凡舌腫脹甚, 宜先刺舌尖, 或舌上, 或邊旁, 出血泄毒, 以救其急. 惟舌下廉泉穴, 此屬腎經, 雖宜出血, 亦當禁針, 慎之.”<sup>23)</sup>라 하였다.

#### 7) 高武

高武는 號가 梅孤이고 明代(約15-16世紀) 四明(지금의 浙江省 鄞縣)사람이다. 그는 治學에서 “復取索, 難而研精之, 旁究諸家”하였고, 先後로 『針灸素難要旨』와 『針灸聚英』을 編著하였으며, 이 두 책은 後世의 針灸學에 대하여 아주 큰 影響을 주었다.

『針灸聚英』에 張子和의 論述과 醫案이 많이 收錄되어 있다. 예를 들면 『玉機微義針灸證治·癰風』에 “子和曰, 刺其面大脈, 出血如墨, 刺三次, 血色變, 每刺

自額至頤, 針上下俱刺, 每隔一日一刺, 刺至二十餘日方已.”<sup>24)</sup>라 記載되어 있다. 同一한 篇의 喉痺와 眼目에 대한 내용에도 “張戴人曰: 手少陰, 少陽二脈, 並於喉, 氣熱則內結腫脹, 痺而不通則死. 後人強立八名, 曰: 單乳蛾, 雙乳蛾……. 至於走馬喉痺. 生死人在反掌間, 砭刺出血, 則病已.”<sup>25)</sup>라고 記載하였고, 또한 “子和曰: 目之五輪, 乃五臟六腑之精華, 宗脈之所聚……. 凡目暴赤腫起, 羞明隱澀, 淚出不止, 暴寒目匡匡, 大熱之所爲也. 在針則神庭, 上星, 幽會, 前頂, 百會, 翳者可使立退, 腫者可使立消.”<sup>26)</sup>라고 記錄하였다.

刺血法을 臨床에 응용한 내용도 많이 收錄되어 있다. 예를 들면 “針緣唇瘡, 須去惡血”<sup>27)</sup>이라 하였고, 癩病의 治療에 대하여 “針委中出血二三合, 黑紫疔瘡處亦去惡血.”<sup>28)</sup>이라 하였으며, 腰痛病의 治療에 대하여 “血滯子下, 委中出血”<sup>29)</sup>이라 하였고, 咳嗽病의 治療에 대하여 “針曲澤, 出血立已”<sup>30)</sup>라 하였다. 그가 收錄한 『攔江賦』에 “噤口喉風針照海, 三棱針血刺時安.”<sup>31)</sup>라고 하였고, 『雜病歌』에 “頭腫上星前頂穴, 大陵出血公孫尖”, “咽喉腫痛又閉塞, 水粒不下合穀得, 少商兼以三棱針”, “復有咽喉腫閉甚, 治之以細三棱針, 把針藏在筆端內, 以藥點腫給患人, 却將筆端點腫處, 刺之立愈病除根”<sup>32)</sup>이라 하였다. 이런 치료 방법은 張子和의 刺血法과 類似하다.

#### 8) 楊繼洲

楊繼洲는 字가 濟時이고 原籍은 三衢(지금의 浙江省 衢縣 六都)이며 明代 嘉靖萬曆(約 서기1522~1620年)時期的 針灸醫家이다. 楊氏는 家學이 淵博하고 太醫院에서 醫官으로 任職한 적이 있으며 聲望이 높았다. 그가 著述한 『針灸大成』은 內容이 豊富하며, 특히 針法, 灸法, 穴法, 手法등에 대하여 독특한 견해를 제출하였다.

19) 盛維忠. 薛立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28.

20) 盛維忠. 薛立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30.

21) 盛維忠. 薛立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33.

22) 盛維忠. 薛立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356.

23) 盛維忠. 薛立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330.

24) 高武. 鍼灸聚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165.

25) 高武. 鍼灸聚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169.

26) 高武. 鍼灸聚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171.

27) 高武. 鍼灸聚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169.

28) 高武. 鍼灸聚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165.

29) 高武. 鍼灸聚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172.

30) 高武. 鍼灸聚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164.

31) 高武. 鍼灸聚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235.

32) 高武. 鍼灸聚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272.

『針灸大成』에 刺血法에 대한 내용이 內科, 外科, 五官科, 傷科 등을 포괄하여 아주 豊富하게 收錄되어 있다. 臨床에서 치료한 病種도 아주 많으며 初中風, 暴死, 絞腸痧, 咳嗽, 消渴, 破傷風, 曆節風, 五癭, 酒醉風, 癩, 腰痛, 緣唇瘡, 頭腫, 牙齦腫, 舌腫, 喉痺, 眼紅腫 및 頭, 乳蛾, 舌強, 舌胎, 咽喉腫痛, 墜傷 등 病證이 收錄되어 있다. 예를 들면 『針灸大成·經外奇穴』에 “內迎香二穴: 在鼻孔中. 治目熱暴痛, 用蘆管子搯出血最效” 33)라 하였다. 여기에서 사용한 放血道具와 出血部位는 張子和가 目赤腫을 치료할 때 사용한 “以革莖鼻”의 방법과 같다. 그리고 『咽喉門』에서 “咽喉腫閉甚者: 以細三棱針藏筆尖中, 戲言以沒藥調點腫痺處, 乃刺之” 34)라 하였다.

楊氏 역시 出血의 禁忌를 중요시하였다. 예를 들면 『玉龍歌』 35)에서 兩睛紅腫을 치료할 때 太陽穴에 放血法을 사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如虛腫不宜去血”이라고 注解를 하였다. 또한 腰痛病에 委中을 出血시켜 치료할 때도 응당히 “弱者慎之”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상기 내용으로부터 살펴보면 楊氏는 刺血法을 오직 實證에만 사용하였고 虛證에 대한 사용은 아주 慎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李中梓

李中梓 (1588~1655年)는 字가 士材이고 號는 念菽와 盡凡居士이다. 明末 華亭(江蘇省 松江)사람이다. 그는 醫學理論의 연구를 매우 중요시 하였고 醫學에 造詣가 깊어 平生동안 二十餘種의 冊을 著述하였다. 그런데 수차례의 兵燹으로 절반이상의 著作이 散佚되었고 지금은 9種밖에 남지 않았다.

李氏의 著書 『病機沙篆』에 刺血法을 사용하여 中風, 雷頭風, 雀目, 霍亂, 腰腿疼, 腳氣, 喉痺 등 病證을 치료한 내용이 記載되어 있다. 예를 들면 『卷下·頭痛』에 “雷頭風之痛而成核塊者是也, 或如雷鳴, 清震湯, 荷葉, 升麻, 蒼術, 腫核宜刺出血” 36)이라 하였다. 腫核의 위에 刺血하는 방법은 張子和가 雷頭風을 치

료하는 방법과 같다. 李氏 역시 刺血法으로 喉疾을 치료하였다. 예를 들면 『里中醫案·吳伯玉少妾纏喉風』에 “京卿吳伯玉少妾, 頸間腫脹, 喉間且痛且麻, 餘曰: 此急喉痺也, 亦名纏喉風. 若不治, 明日必死. 今脹而喘, 毒勢方張, 且惡寒者, 病方在表, 急以甘, 桔, 荊, 防, 牛蒡, 枳殼, 薄荷煎成, 另生薑汁五匙服之, 喘脹如故. 忽刺少商穴出血, 再進前劑愈矣.” 37)라 記載하였다. 李氏가 少商穴을 出血시켜 喉痺證을 치료한 방법은 張子和와 같고, 단지 張子和는 局部穴位의 사용을 더욱 強調하였을 뿐이다.

醫家	常見病의 治療	비고	
汪機	頭面赤腫: 患部 丹毒: 患部 癩犬傷: 患部	外科病을 治療할 때 出血量이 많고 鍍針도 사용하였다.	
李梴	赤眼: 迎香 舌腫, 重舌: 舌下兩邊紫筋 偷針疔: 患部 絞腸痧: 十井	解痧: 十指, 委中 太陽症: 委中 丹毒: 患部	外科와 內科병증치료에 사용하였다.
薛己	時毒: 患部 發背: 患部 瘡疥: 患部 瘤贅: 患部 瘡瘍: 指縫, 舌腫: 患部 臂腕患處 內傷: 環跳 撲傷: 患部 環跳痛: 委中	疔瘡: 患部 丹毒: 患部 腦疽: 患部 腳氣: 患部 喉痺: 患部, 少商 癩犬傷: 患部	於外科病의 治療에 廣汎히 응용하였고 局部의 穴을 많이 取하였다.
高武	腰痛: 委中 癩: 委中, 患部	緣唇瘡: 患部 咳嗽: 曲澤	內科와 外科病에 응용하였다.
楊繼洲	墜傷: 然穀, 大敦 曆節風: 阿是穴 五癭: 十宣 初中風: 十二井 暴死: 十二井 絞腸痧: 十二井 牙齦腫: 患部	腰背強: 委中 腰痛: 委中 酒醉風: 患部 破傷風: 太陽 緣唇瘡: 患部 癩: 患部, 委中 舌腫: 金津, 玉液	『針灸大成』에 收錄되어 있고 明代의 經驗을 總結하였다. 內科, 外五

33) 楊繼洲. 鍼灸大成. 大星文化社. 1984. p. 381.

34) 楊繼洲. 鍼灸大成. 大星文化社. 1984. p. 414.

35) 楊繼洲. 鍼灸大成. 大星文化社. 1984. p. 79.

36) 包來發.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 459.

37) 包來發.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 772.

	頭腫: 大陵, 咳嗽: 曲澤 上星, 前頂 消渴: 海泉 眼紅腫及頭: 太陽 乳蛾: 十宣 舌強, 舌胎: 聚泉 咽喉腫痛: 三商 喉痺: 患部	官科, 傷科 등에 廣泛 히 使用하 였다.
李 中 梓	初中風: 十宣 雷頭風: 患部 雀目: 神庭, 上星, 腰腿痛: 委中 百會, 前頂, 凶會 霍亂: 委中 喉痺: 患部 腳氣: 患部	內科와 外科에 사 용하였다.

표 2. 明代醫家の 常見病에 대한 刺血治療方法  
10) 郭志遠

郭志遠는 字가 右陶이고 清代 康熙年間 構李(浙江省 嘉興) 사람이다. 學者 家門에서 태어났다. 郭氏는 痧脹病이 發病이 急하고 傳變이 빠르게 쉽게 治愈되지 않는 特徵을 감안하여 廣範하게 治療秘驗을 수집하고 널리 여러 醫家들의 長點들을 따라 배웠다. 그리고 『靈樞』, 『素問』, 『甲乙經』 등 經典들을 參考하고 자신의 臨證心得을 結合하여 『痧脹玉衡』을 著述하였다.

『痧脹玉衡』中 郭氏의 論點은 張子和가 “攻邪”을 主張하는 觀點과 서로 類似하다. 그는 이 冊에 “夫人有痧毒, 如家之遇賊寇也, 人有虛實, 如家之有厚薄也, 假若賊寇操戈已入於室內矣, 而乃以家之資財之薄也, 其賊寇可不驅而出之乎! 吾見家有賊寇, 必先驅之爲是. 人有痧毒, 亦無不先驅之爲是也. 故痧發不論虛實, 驅毒在所當先, 溫補必子收後, 此痧所以有實而無虛也”<sup>38)</sup>라 記錄하였다. 郭氏는 驅毒을 우선으로 할 것을 강력히 主張하였고, 이는 張子和의 “邪氣加諸身, 速攻之可也, 速去之可也, 攬而留之, 可乎?”<sup>39)</sup>라는 主張과 一致한 것이다.

또한 그는 『痧脹玉衡·治痧三法』에서 “膚肌痧, 用油鹽刮之, 則痧毒不內攻. 血肉痧, 看青紫筋刺之, 則痧毒有所泄……經絡痧……可消, 可散, 可驅.”<sup>40)</sup>라고 提起하였다. 郭氏는 刺血法은 痧毒을 치료하는 必需적인 方法이고 “血流如注”할 정도로 항상 사혈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張子和의 放血량을 많이 하는 수법과 거의 같다. 예를 들면 『卷之上·傷寒兼痧』에 “刺腿彎青筋三條, 紫黑毒血湧出甚多.”<sup>41)</sup>라 하였고, 『卷之中·禁口痧』에 “刺腿彎紫筋三針, 血流如注, 又刺頂心, 臂指二十餘針”<sup>42)</sup>이라 하였다.

刺針 個數와 部位도 張子和의 應用特徵과 아주 비슷하며, 관련 醫案을 살펴보면 『卷之中·痧熱』에 “又於十指臂彎, 刺出紫黑毒血三十餘針.”<sup>43)</sup>이라 기록하였고, 『卷之中·遍身腫脹痧』에 “視其腿彎, 果有癢筋青色, 刺五針, 紫黑毒血流之如注, 未愈. 又刺指頭毒血二十針.”<sup>44)</sup>이라 기록하였다. 上記와 같은 예는 아주 많은데 이것은 郭氏가 刺血法을 아주 熟練하게 運用하였고, 또한 張子和의 “二多” 特徵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不同한 點은 針具에 대한 選用인데, 張子和는 金非針 을 많이 썼고 郭氏는 銀鍼을 썼으며 『卷之上·用針說』에 “銀性最良, 入肉無毒, 以之治至深之痧毒, 不尤愈於鐵針乎?”<sup>45)</sup>라고 提起하였다. 郭氏가 瀉血할 때 取한 穴은 百會, 印堂, 太陽, 喉中兩旁, 舌下兩旁, 雙乳, 手十指頭, 兩臂彎, 兩足十指頭, 兩腿彎 등 이다.

11) 鄭宏綱

鄭宏綱은 字가 紀原이고 別號는 梅澗이며 清代 喉科病治療의 名家이다. 대략 서기 16世紀 下半期에 태어 났으며 安徽省 歙縣 사람이다. 家學이 淵博하고 喉科에 대한 學問이 깊었다. 그가 著述한 『重樓玉鑰』은 喉科專書이고, 이 著作에는 臨床에서 白纏喉(白喉와 類似함)를 치료한 經驗이 많이 記載되어 있다.

鄭氏는 喉病에 대하여 針藥을 結合하여 治療할 것을 主張하였고, 특히 針灸를 推重하였으며 그가 言及한 “破皮針”이 바로 刺血法의 구체적인 應用이다.

鄭氏가 “破皮針”을 사용할 때 항상 瀉血할 것을 強調하였다. 예를 들면 “爆骨搜牙以風”, “懸旗風”,

38) 郭志遠. 痧脹玉衡.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0.  
39) 郭志遠. 痧脹玉衡.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6.  
40) 郭志遠. 痧脹玉衡.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10.

41) 郭志遠. 痧脹玉衡.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6.  
42) 郭志遠. 痧脹玉衡.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37.  
43) 郭志遠. 痧脹玉衡.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39.  
44) 郭志遠. 痧脹玉衡.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31.  
45) 郭志遠. 痧脹玉衡.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18.

“重腮風”，“雙搭頰風”，“穿頰風”，“癩癧風” 등 病證의 치료에 대하여 모두 瀉血하여 치료할 것을 主張하였다. 鄭氏는 瀉血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預後도 判斷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喉以針訣』에 “若針路無血，乃風熱壅塞，則受鬱邪日深，段爲險症。”<sup>46)</sup>이라 하였다.

“破皮針”의 選穴部位는 대개 患部와 그 近處인데, 예를 들면 “門底風”은 가슴 앞의 靑筋邊에서 取穴하고, “雙燕口風”은 腫한 部位에서 取穴하며, “水舌風”과 “重舌風”은 舌下弦 兩邊의 無筋處에서 取穴하며, “合架風”은 紅腫部位에서 取穴하며, “爆骨搜牙風”은 腫齒의 齒間에 紅紫한 血管이 있는 곳에 瀉血하며, “懸旗風”은 紅腫部位에서 取穴하며, “驢嘴風”은 양옆의 腫한 部位에서 取穴하며, “癩癧風”은 核위에 사혈하며, “穿頰風”은 局部에서 選穴하여 瀉血한다고 하였다.

鄭氏가 “破皮針”으로 施術할 때 鈹針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刺血部位가 喉와 口腔部位이기 때문에 淺刺하고 深刺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鄭氏와 張子和가 刺血法을 사용한 共同點은 모두 鈹針을 사용하였고 患部에서 選穴하는 방법으로 口腔疾病을 치료한 것이다.

## 12) 王洪緒

王洪緒는 字가 維德이고 別號는 林屋散人와 定童子이다. 江蘇省 吳縣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醫學 공부를 하였고 曾祖父의 若穀之學을 계승하여 內科, 外科, 婦科, 小兒科등 여러 科에 능통하였으며 특히 外科에 더욱 능통하였다. 그가 著述한 著作에는 『外科症治全生集』이다. 王氏는 外科諸證의 辨證은 應當히 陰陽을 綱要로 삼아야 하고, 治療는 “以消爲賃, 以托與畏”<sup>47)</sup>을 原則으로 삼아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外科症治全生集』에 實熱火毒證을 치료할 때 藥物治療와 刺血法을 應用하였다는 내용이 記載되어 있다. 예를 들면 『陽症門·牙癰』에 “牙恨肉紅腫痛甚

者是，刺出毒血”<sup>48)</sup>이라 하였고, 『咽喉口舌門·舌硬生衣』에 “先用針刺出舌尖黑紫血。”<sup>49)</sup>이라 하였으며, 『陽症門·疔毒』에 “初起刺擠惡血，見好血而止。”<sup>50)</sup>라 하였다. 王氏는 紅絲疔을 治療하는 方法에 대하여 “在紅線兩頭始末刺破，毒隨血出而愈”<sup>51)</sup>라 하였다. 患部에 瀉血하여 口腔과 外科病證을 治療하는 方法은 張子和이후로 많은 醫家들이 사용하였다.

## 13) 李學川

李學川은 字가 三源이고 號는 鄧尉山人이며 清代 江蘇省 吳縣 사람이다. 著書로는 『針灸逢源』이 있다.

『針灸逢源』은 모두 六卷으로 되어있는데, 그중 세권에 刺血法의 사용에 대하여 言及되었다. 그는 刺血法을 癩狂, 癩疫, 痧症, 中惡, 癩風, 目痛, 目眶赤爛, 眼生倒睫拳毛, 舌腫, 喉痺, 疔瘡, 瘤贅 등 火熱實證의 치료에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卷四·經外奇穴考』에 “內迎香二穴，在鼻孔中，治目熱暴痛，用蘆管子插出血最效。”<sup>52)</sup>라고 하였고, 『卷五·咽喉門』에 “喉痺……少商出血。”<sup>53)</sup>이라 하였다.

李氏는 外科病의 治療方面에 대하여 『卷五·療瘡』에 “疔瘡初發，必用做鈹刺入瘡心四五分，挑斷疔根，令出惡血。”<sup>54)</sup>이라 하였다. 李氏가 사용한 鈹針이 바로 金非針이다. 그가 外科病을 치료할 때 鈹針으로 局部에 사혈하는 방법은 張子和의 治療方法과 같다.

『針灸逢源』에 張子和가 目疾의 치료한 論點이 수록되어 있는데, 즉 “聖人雖言目得血而能視，然血亦有太過不及也，太過則目壅塞而發痛，不及則目耗竭而失明，……刺太陽陽明出血則愈明，刺少陽出血則愈昏。”<sup>55)</sup>이라 하였다.

48) 王洪緒. 外科症治全生集.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9.

49) 王洪緒. 外科症治全生集.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0.

50) 王洪緒. 外科症治全生集.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7.

51) 王洪緒. 外科症治全生集.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7.

52) 李學川. 鍼灸逢源.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1987. p. 11.

53) 李學川. 鍼灸逢源.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1987. p. 21.

54) 李學川. 鍼灸逢源.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1987. p. 24.

55) 李學川. 鍼灸逢源.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1987. p. 18.

46) 鄭宏綱. 重樓玉鑰.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11.

47) 王洪緒. 外科症治全生集.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



14) 吳尚先

吳尚先은 字가 師機이고 原名이 安業이며 浙江省 錢塘 (지금의 杭州) 사람이다. 清代 嘉慶十一年 (1806年)에 生하여 光緒十二年 (1886年)에 卒하였다. 吳尚先은 外治法을 잘 活用하여 內외의 諸疾을 치료하였고 數十年동안 臨床經驗을 쌓았으며 外治法의 理論研究에 대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理論駢文』 (一名 『外治醫說』)을 지어 “內外治殊途同歸之理”<sup>56)</sup>을 闡發하였다. 이 책은 內容이 豊富하며 사용한 外治方法은 外科疾患의 治療에만 局限되어 있지 않고 모든 內科雜證의 治療에도 응용되었다.

『理論駢文』에 많은 醫家의 學術觀點을 引用하였으며, 그 속에 張子和의 論述도 包括되어 있다. 그는 『理論駢文·六淫』에 “吐法, 今人不講久矣. 子和雲: 余若汗, 下, 吐三法, 常兼眾法. 有按有躄, 有瀉白有導, 有增減有續止, 如引涎, 瀉涎, 取嚏, 追淚, 凡上行者, 皆吐法也. 薰蒸, 漂洗, 熨烙, 針刺, 砭射, 導引, 按摩, 凡解表者, 皆汗法也. 催生, 下乳, 磨積, 逐水, 破經, 泄氣, 凡下行者, 皆下法也.”<sup>57)</sup>라고 記載하였다. 吳氏는 張子和의 “出血同汗論”을 唱導하였고, “喉症忌發汗, 以砭刺出血爲汗.”<sup>58)</sup>이라 主張하였으며, 또한 治法에 대하여 『理論駢文·身形五官』에 “用三稜針刺少商穴出血, 並刺委中穴, 以泄毒氣. 喉閉刺十宣穴, 皆是火鬱發之之義. 又急症並刺患處出血.”<sup>59)</sup>이라 하였다.

熱毒이 심해 舌頭가 腫脹하고 重舌, 木舌 등 病證이 나타날 때 “皆以針刺出血而愈”<sup>60)</sup>라 하였고 그러나 “不可輕試”해야 한다고 警告하였다. 그는 刺血法으로 舌腫을 治療하면 治療效果가 확실히 좋지만 단지 刺針할 때 舌下動脈을 피해 出血이 不止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吳氏는 刺血法으로 喉症, 舌腫, 唇齒, 丹毒, 赤膈, 腰痛, 痘疹 등 疾患을 治療할 뿐만 아니라 內科病도 治療하였다. 예를 들면 霍亂轉筋證에 委中穴에 瀉血

하여 治療하고, 幹霍亂證은 中指에 瀉血하여 治療하였다. 이런 治療방법들은 張子和와 不同한 點이 있다.

15) 廖潤鴻

廖潤鴻은 字가 達賓이고 湖南省 淶江 (지금의 醴陵市) 사람이며 清代의 醫家이다. 廖氏는 學問에 부지런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博學하고 재주가 많았다. 天文, 算學, 地學으로부터 蔔巫, 星命 등 여러 學問에 이르기까지 깊이 연구하였다. 그는 특히 針灸에 능통하였고 著述한 著作은 『勉學堂針灸集成』과 『考證周身穴法歌』가 있다.

『勉學堂針灸集成』에 刺血法에 대한 內容이 많이 收集되어 있고, 多數가 實熱症에 대한 治療內容이다. 예를 들면 頭面熱極, 頭面腫脹胸脅支滿, 頭面風癢, 風目眶爛, 卒心胸痛, 流注, 霍亂, 龍瘡, 丹毒, 風癩, 蛇咬傷, 初中風, 痲瘋, 目赤痛, 腰痛 등 病證을 대한 刺血法治療 內容이 收錄되어 있다. 廖氏는 頭面風癢證의 治療에 대하여 “發作一二日, 赤腫形如火爛突起, 如榛子或如潤大, 因漸廣大, 氣息奄奄, 急以三稜針亂刺當處及四畔赤暈, 不計其數, 多出惡血, 片時即蘇, 色變如常. 翌日更觀未盡處及新暈針刺, 隨腫隨針則神效, 宜臨機應變.”<sup>61)</sup>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張子和의 “黃氏小兒, 面赤腫”이라고 한 醫案에 소개된 治療法과 類似하다. 患部에 규칙 없이 十餘곳 刺針하거나 혹은 수없이 刺하고, 治療 다음날에 또 대량으로 瀉血시키는 方法이 이 두 醫家의 공통특징이다.

廖氏 역시 “出血與汗出同”의 觀點을 主張하였으며 『卷二·傷寒及瘟疫』에 “熱病極熱頭痛引飲三日: 以柔索纏肩下臂上左右尺澤穴, 上下青絡血貫, 刺多出血, 棄如糞汁, 神效. 出血與汗出同故也.”<sup>62)</sup>라 하였다.

廖氏가 刺血하는 部位와 出血量은 아주 많았다. 예를 들면 蝦蟆瘟의 治療에 대하여 『卷二·傷寒及瘟疫』에 “急以三稜針貫刺頭額上當陽血絡及太陽血絡, 多出惡血, 繼以綱系其肩下臚上, 即針刺左右尺澤, 大

56) 吳師機. 理論駢文.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164.

57) 吳師機. 理論駢文.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181.

58) 吳師機. 理論駢文.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192.

59) 吳師機. 理論駢文.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260.

60) 吳師機. 理論駢文.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278.

61) 廖潤鴻. 勉學堂針灸集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 70.

62) 廖潤鴻. 勉學堂針灸集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 106.

小血絡及委中血絡，並棄血如糞，則不日而飲水，神效。”<sup>63)</sup>라 하였다.

또한 「瘡腫·風丹及火丹毒」에 “以三稜針，無間亂刺當處及暈畔，多出惡血，翌日更看赤氣所在，如初亂刺，棄血如糞，神效.”<sup>64)</sup>라 하였고, “風癩……以三稜針間一二日亂刺身上肉黑處”<sup>65)</sup>라 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廖氏가 瀉血時 三稜針을 자주 사용하는 면에서 張子和와 不同하였지만 瀉血時 刺針數와 放血量이 많은 것은 아주 類似하다.

16) 夏春農

夏春農은 自號가 拙庵稀叟이고 刊上 (지금은 江蘇省 揚州市) 사람이다. 清代 末期 喉科의 醫家로서 生卒年月은 확실치 않다. 「疫喉淺論」이라는 책을 著述하였다.

夏氏는 「疫喉淺論·論疫喉痺至危證宜先用刺刮吐三法」에 “夫疫喉至危者，喉痺也，……倘症勢迅速，喉關腫閉，湯水難下，又非湯藥速能奏效者，予再四思維，必當先刺少商穴出血以泄蓄熱，仿火鬱發之旨也。按，發者，發其汗也，出血者，亦發汗之一端也。”<sup>66)</sup>라 하였는데, 이 觀點은 張子和의 主張과 같다.

夏氏는 疫喉痺를 치료할 때 少商에 瀉血한 후 직접 患部에도 針刺하여 出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再看咽喉紅紫腫痛，已潰未潰，或潰而未深，項外漫腫，痰壅氣閉，湯水難受，急用喉針在喉之兩旁高腫處，刺入分許，或一二下，或二三下.”<sup>67)</sup>라 하였다.

또한 夏春農은 少商穴에 瀉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穴도 選用하여 사혈하였다. 예를 들면 “疫痧悶伏隱而不見，皮膚紫黑，極危極惡之證也。……再用三指拍曲池穴，下部委中穴，陽交穴拍出紫塊，刺出黑血，並刺兩間使穴，兩大陵穴，務要出血，無血不治.”<sup>68)</sup>라 하

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夏氏도 瀉血할 때 많은 部位를 針刺하였으며 이는 張子和의 瀉血特徵과 같다.

「疫喉淺論」에 夏氏는 刺血法을 運用할 때 刮穴法과 配合하여 사용할 것을 強調하였고, 內出血과 外出血을 結合시켜 치료해야 하며, 皮膚에 痧斑이 나타나면 이것은 皮內出血現象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透痧, 解毒, 清心, 瀉火 등 作用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방법은 刺血法을 더 한층 發展시킨 것이다.

醫家	常見病의 治療	비고
郭志選	痧脹: 百會, 印堂, 太陽, 喉中兩旁, 舌下兩旁, 雙乳, 手十指頭, 陽臂彎, 兩足十指頭, 兩腿彎	痧症을 치료하는 穴 자리를 발견 시켰고 瀉血量이 많고 針刺部位가 많다. 銀鍼을 사용하였다.
鄭宏綱	喉疾: 患部 혹은 周邊	鈹針을 많이 사용하였다.
王洪緒	牙癰: 患部 疔毒: 患部 舌硬生衣: 患部 紅絲疔: 患部	實證에 사용하였다.
李學川	癲狂: 舌下中縫 瘟疫: 曲澤 睛痛欲出: 十指縫 痧症: 青筋處 目眶赤爛: 目眶外 舌腫: 金津, 玉液 眼生倒睫拳毛: 患部 喉痺: 少商 疔瘡: 患部 癩贅: 患部 癰風: 委中, 患部 中惡: 腕內紅筋, 十指頭	「針灸逢源」에 수 집되어 있다. 外科病에는 鈹針을 사용하였다.
吳尙先	霍亂轉筋: 委中 幹霍亂: 中趾 赤膈: 患部 脣菌: 少商 腰痛: 委中 舌腫: 患部 丹毒: 患部 痘疹: 患部 喉症: 少商, 委中, 十宣	內科와 外科에서 사용하였다.
廖潤	頭面熱極: 太陽, 流注: 患部, 當陽 頭面壅腫: 肘內血絡	「針灸集成」에 수

63) 廖潤鴻. 勉學堂針灸集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 106.  
 64) 廖潤鴻. 勉學堂針灸集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 100.  
 65) 廖潤鴻. 勉學堂針灸集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 100.  
 66) 夏春農. 疫喉淺論.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1984. p. 12.  
 67) 夏春農. 疫喉淺論.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1984. p. 15.  
 68) 夏春農. 疫喉淺論.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1984. p. 24.

鴻	初中風: 十井, 陷穀 頭面風癢: 患部 風癩: 患部 風目眶爛: 太陽 腰痛: 委中, 當兩, 尺澤 卒心痛: 間使, 神門, 頭風: 絲竹空 列缺, 大敦 霍亂: 關衝 偏頭風: 太陽 龍瘡: 湧泉, 委中 酒醉風: 素膠 丹毒: 患部 熱病: 委中 蛇咬傷: 患部の 相對側 消渴: 海泉 痲癩: 歷兌, 三裏, 頭痛頭腫: 解溪, 商丘 上星 胃瘡: 衝陽 蝦蟆瘡: 當陽, 太陽 眼赤痛: 絲竹空, 攢竹 喉痺, 舌腫: 金津, 玉液	록되어 있 으며 清代 의 經驗을 總括한 책 이다. 刺血部位 가 많고 出血量도 많다.
	夏 春 農 疫喉: 少商, 患部, 曲池, 委中, 陽 交, 間使, 大陵	刺血部位 가 많다.

표 3. 清代醫家の 常見病에 대한 刺血治療方法

2. 現代

1) 賀普仁

賀普仁<sup>69)</sup>은 針灸治病의 經驗을 “三通法”으로 總括하였다. 즉 “微通法”, “溫通法” 및 “強通法”이다. 그중 “強通法”이 바로 刺血法이다.

賀氏는 “強通法”의 作用原理는 韓醫學의 總綱인 經絡과 氣血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그는 刺血法은 局部에서 瀉血하지만 組織器官들이 經絡을 통하여 서로 연계되어 있어 全身에 대하여 調節作用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방법은 瀉血을 통하여 直接的으로 血液을 調節할 수 있어 以血調氣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氣血이 상호 影響을 주어 氣病이 血에 영향을 미치고 血病도 역시 氣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賀氏 刺血法은 바로 이런 理論을 根據로 하여 獨特한 治療體系를 형성한 것이고, 治血調氣를 통하여 經絡을 通達시키고 活血祛瘀하여 臟腑의 機能을 和諧하게 함으로써 陰陽平衡의 目的을 實現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69) 1926生, 現 中國의 著名鍼灸專門家, 北京鍼灸協會長, 中國鍼灸學會顧問, “賀氏鍼灸三通法”의 創始人.

賀氏는 不同한 症狀, 不同한 施術部位에 따라 刺血手法를 다섯 가지 種類로 구분하였다.

①緩刺: 淺表部位의 靜脈瀉血에 適用한다. 예를 들면 尺澤, 委中, 太陽穴 등 부위이다. 刺血時 서서히 針을 찌르고 천천히 침을 뽑으며 黑色血이 모두 흘러나와 赤色血로 되었을 때 止血시킨다.

②速刺: 刺血時 신속하고 빠르게 刺針하며 刺針部位를 손으로 짜서 피가 빨리 흘러나오게 한다. 예를 들면 咽喉痛에 少商을 刺할 때, 中暑에 十宣을 刺할 때, 中風에 十二井穴을 刺할 때, 모두 이 方法을 應用할 수 있다.

③挑刺: 筋肉이 얇은 부위에 刺血할 때 適用한다. 예를 들면 胸部, 腹部, 背部 및 頭面部의 穴자리에 刺血할 때 먼저 손으로 살을 꼬집어 올려 옆으로 針을 찌른다.

④圍刺: 針으로 患部の 周邊에 數針 혹은 數十針을 點刺하고 위에 부항을 加하여 惡血을 깨끗이 뽑아내는 方法이다. 이 방법은 癰腫, 痺症, 大頭癰 및 丹毒 등 病證을 치료하는데 適用한다. ⑤密刺: 梅花針으로 환부를 扣刺하여 皮膚病을 치료하는 자주 쓰는 方法이다. 예를 들면 頑癬 등 病證을 치료하는데 사 용한다.

上記 五種類의 刺血法中 특히 圍刺法이 刺針數와 適應證이 張子和와 같다. 예를 들면 賀氏도 丹毒을 치료할 때 腫痛의 周邊을 에워싸고 圍刺하여 瀉血하였다.

그리고 賀氏가 內迎香으로 天行赤眼을 치료하고, 金津과 玉液로 舌腫을 치료하는 方法은 張子和의 治 療方法과 완전히 같다.

賀氏가 刺血法을 사용하여 治療한 疾病은 아래의 圖表를 參照할 수 있다.

病名	穴位	비고
發熱	大椎, 攢竹	大椎穴 위에 부항을 가한다.
流腦	攢竹, 印堂, 十宣, 人中, 大椎	十宣과 攢竹穴은 速刺하고 大椎는 挑刺하고 위에 부항을 가

		한다.
天行赤眼	耳尖穴, 內迎香	速刺法
舌腫	金津, 玉液	緩刺法
脫髮	上廉, 四縫, 百會, 風池	
酒渣鼻	阿是穴	圍刺法
瘡瘡	耳尖穴, 背部的 痣點	耳尖은 速刺法, 背部는 挑刺法을 使用한다.
黃褐斑	耳尖穴, 背部는 痣點	耳尖은 速刺법, 背部는 挑刺法을 使用한다.
疔積	四縫	速刺法
高血壓	四神聰, 合穀, 太衝(兩側)	四神聰은 速刺法, 合穀과 太衝穴은 輕刺한다.
毛囊炎	大椎, 委中	大椎는 速刺法에 方向을 가하고 委中은 緩刺한다.
丹毒	阿是穴	圍刺法
濕疹	耳背青筋(靜脈), 背部的 痣點	耳背部는 緩刺法, 背部는 挑刺法을 使用한다.
帶狀皰疹	龍眼(經外奇穴), 阿是穴	速刺法
過敏性皮膚炎	委中, 耳背青筋	緩刺法
泛發性神經炎	委中, 耳背青筋	委中은 緩刺法, 耳背와 背部는 挑刺法을 使用한다.
牛皮癬	委中, 耳背青筋	緩刺法
下肢靜脈曲張	阿是穴(靜脈이 突出한 部位)	緩刺法
麻木	阿是穴, 十宣 혹은 十二井穴	
急性胃腸炎	曲澤, 委中(兩側)	緩刺法

표 4. 賀普仁의 常見病에 대한 刺血治療法

2) 師懷堂

師懷堂<sup>70)</sup>도 刺血法을 잘 使用하였다. 그는 刺血法은 止痛, 退熱, 解毒 등 作用이 뚜렷하다고 하였다. 師氏는 經絡의 阻滯가 疼痛을 發生되는 根本原因이

며, 瀉血은 直接的으로 瘀滯를 풀어주어 經脈을 暢通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止痛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血汗同源이므로 刺血은 發汗과 같은 作用을 일으켜 熱이 血의 排出에 따라 사라질 수 있어 退熱 作用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刺血은 直接 邪毒을 體外에 排出할 수도 있기 때문에 解毒作用도 있다고 하였다. 師氏의 이 세 가지 作用에 대한 見解는 실은 張子和의 刺血法의 學術思想과 一致한 것이다.

師氏가 一般的으로 刺血에서 使用한 穴位는 十二井穴, 十宣, 印堂, 太陽, 百會, 人中, 承漿, 大椎, 身柱, 至陽, 筋縮, 命門, 曲洋, 委中, 四縫, 阿是穴, 內迎香 등 이다.

病名	穴位	비고
頭痛	天柱, 大椎, 百會, 頭位	偏頭痛: 太陽, 完骨
前頭痛	印堂, 上星, 百勞	至陰(配穴)
頭暈	百會, 率穀	湧泉(配穴)
扁桃體炎	天柱(兩側), 大椎	耳後靜脈: 耳三鍼(配穴)
急性咽喉炎	天柱(兩側), 大椎	天容(兩側)(配穴)
感冒	大椎, 風池, 印堂	十二井穴(配穴)
高熱	大椎, 十二井穴, 耳三鍼, 耳後靜脈	隱白, 至陰, 委中(配穴)
中暑	人中, 承漿, 印堂	十宣(配穴)
昏迷쇼크	人中, 十宣, 隱白	素膠(配穴)
癲癇	大椎, 陶道, 四神聰, 百會, 印堂, 人中	隱白, 長強(配穴)
小兒抽風	大椎, 印堂, 十宣, 人中	
小兒疳積	四縫	大椎, 脾俞, 胃俞(配穴)
小兒濕疹	委中, 曲澤, 大椎	仆參, 耳後靜脈瀉血
痔疾	八膠穴部位에 反應點이 있는데 그곳을 挑刺한다.	臍交部位에 좀 얇만한 크기의 腫기가 있는데 그것을 刺破하거나 잘라낸다.
淋巴管炎	紅線을 逆行하여 1寸 사이로 點刺한다.	刺出血하고 頭부터 尾까지 點刺한다.

70) 當代 中國의 著名鍼灸學家, 山西省鍼灸研究所 所長, “新九針療法”의 創始人.

急性結膜炎(紅眼病)	大小骨空, 上下眼瞼	大椎穴에 點刺 出血
여드름	夾脊穴의 反應點에 挑刺한다. 鋒鉤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局部에 梅花針으로 扣刺하여 은은히 出血하게 하면 된다.
急性胃炎	曲澤, 委中, 少商穴에 瀉血	
四肢麻木	手足十二井穴, 天柱穴 點刺	大椎, 百勞穴 點刺
手足耳의 凍傷	국부에 매화참으로 구자	은은히 出血하게 한다.
麥粒腫	大椎, 大杼 및 背部의 反應點에 點刺出血시킨다.	鋒鉤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氣管支性 喘息	頸部夾脊穴, 肺俞, 膻中, 魚際	鋒鉤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頸部淋巴 結核	百勞, 大椎, 陶道	세 穴의 夾脊穴에 鋒鉤針을 사용
前列腺炎炎	命門, 陽關, 腰俞, 長強	八髎, 鋒鉤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표 5. 師懷堂의 常見病에 대한 刺血治療法

3) 魏稼

魏稼<sup>71)</sup>는 刺血法을 刺營 혹은 營刺라고 하였는데 이는 『靈樞·壽夭剛柔』에 “刺營者出血”라는 記錄에 根據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魏氏는 營刺法의 作用原理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說로 總括하였다.

①通經活絡說: 즉 「內經」에서 말한 “通其經脈, 調其氣血”을 근거로 營刺는 直接經絡을 刺激하여 通經活絡의 作用을 일으킬 수 있다.

②活血祛瘀說: 臨床에서 痛證은 거의 瘀血과 關聯이 많으므로 所謂 “通則不痛, 痛則不通”, “久痛入絡”란 觀點에 근거하여 營刺瀉血은 가장 적절한 治療法이며 效果도 가장 좋은 것이다.

③邪去正安說: 이것은 張子和가 提出한 觀點으로서 邪氣는 致病의 重要한 原因이므로 瀉血을 爲主로 攻

邪한다면 邪去되어 正氣가 安定될 수 있으며 攻邪를 통하여 扶正하는 것이다.

④泄熱排毒說: 張子和는 血汗同源이고 “出血與發汗, 名異而實同”이라고 認識하였다. 또한 그는 瀉血은 發汗의 作用과 같으며 發汗도 역시 泄熱하는 作用이 있다고 主張하였다. 丹毒, 蟲蛇咬傷, 癰疽等과 같은 많은 病證은 모두 血分熱毒과 關聯이 있으므로 瀉血排毒法의 治療效果가 뚜렷하다.

⑤消腫消痞說: 人體의 痞塊腫脹은 多數가 瘀血이 積聚되어 發生한 것이기 때문에 瀉血은 痞塊를 除去시키는 效果가 있다.

魏氏는 瀉血量에 대하여 아주 중요시 하였다. 많은 頑疾重症의 治療에서 每번의 瀉血量은 應당히 10~15ml가 適合하며, 或은 「內經」의 “血變而止”라는 원칙을 따르면 좋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魏氏는 15歲난 한 患者를 治療한 적이 있었다. 이 患者는 普通型 流行性 腦脊髓膜炎으로 尿閉한지 一日되어 처음에 「靈樞·熱病」中의 “癰, 取之陰驕及三毛上血絡出血”이라는 方法으로 照海, 大敦 등 穴에 微刺하여 血을 몇 방울 瀉血하니 小便이 通하였는데 머지않아 다시 閉塞하였다. 그리고 6시간 후에 再刺하였으나 無效하였다. 그래서 瀉血量이 너무 적었기 때문인 것이 安인가고 고려하여 그 다음날 上記 穴에 瀉血量을 약 10餘ml로 늘리자 단 한번의 瀉血로 小便이 通暢해지고 高熱도 신속히 사라졌으며 其他 頭痛과 같은 다른 症狀들도 顯著하게 緩和되었다.

魏氏는 張子和의 “驅邪務盡”이라는 學術적 思想의 影響을 받아 疑難症의 治療에서 瀉血量을 많이 할 것을 主張하였다.

그리고 魏氏는 咽喉急症을 治療할 때 患部에 叢刺하고 三商과 耳輪三點穴을 點刺해줄 것을 主張하였다. 이는 완전히 張子和의 喉痺治療에 患部와 少商에 瀉血하는 治法을 繼承한 것이고, 또한 더한층 發展시킨 것이다. 즉 多老商, 中商(奇穴) 및 耳輪三點(耳穴)을 加하여 血熱을 宣泄하는 治療效果를 強化하였다.

71) 1993年生, 中國 江西省 都昌人. 著名鍼灸學家, 江西中醫學院教授, “各家鍼灸學說”과 “無創痛鍼灸學” 등 두 새로운 學科를 創立한 者.

### Ⅲ. 結論

本 課題는 臨床治療方面에서 元, 明, 清代 및 現代의 19명의 醫家들이 刺血法으로 치료한 病의 種類와 穴位를 張子和의 刺血療法과 對照하여 考察한 結果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었다.

①張子和의 刺血法은 後世醫家에 대하여 아주 큰 影響을 주었고 同時에 이 治療法의 무궁한 生命력을 證明하였다.

②張子和의 刺血法은 放血量이 많고 사용한 針의 個數도 많았다. 그의 外科病의 치료에서 患部에 瀉血하는 方法을 잘 사용하였고, 이러한 치료방법은 元, 明, 清代부터 지금까지 많은 醫家들이 계속 사용해 왔다.

③張子和以後 明代에 이르러 外科에서 刺血法을 사용하여 치료한 病種이 대폭 늘었다. 즉 疔瘡, 時毒, 發背, 腦疽, 偷針疔, 五癰, 緣唇瘡, 癰瘍 등 病證을 包括하여 많은 병을 치료하였는데 활용되었고 이는 張氏之學을 한층 더 發展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咽喉科疾患의 치료에서 張氏之學에 대한 繼承과 發展의 痕迹이 뚜렷하다. 張子和는 少商과 患部로 喉痺를 치료하였지만 明代에 와서는 十宣, 三商 등 穴을 추가로 사용하였고, 清代에 와서는 曲池, 委中, 陽交, 間使, 大陵 등 穴이 추가되었으며, 現代에 와서는 耳穴, 大椎, 天柱 등 穴이 추가되었다.

⑤後世醫家は 張子和의 刺血法의 使用範圍를 더 擴充하여 實證뿐만 아니라 어떤 虛症의 치료에도 응용하였다. 그리고 三棱針을 자주 썼으며 出血의 禁忌를 더욱 중요시하였다

⑥現代醫家は 刺血法은 止痛, 退熱, 解毒 등 作用이 뚜렷하고 刺血法을 刮穴法과 配合하여 사용하면 透痧, 解毒, 清心, 瀉火 등 作用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이런 觀點은 張子和의 刺血法을 더 한층 發展시킨 것이다.

#### <단행본>

1. 盛維忠. 薛立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 王洪緒. 外科症治全生集.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4. 包來發.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5. 廖潤鴻. 勉學堂針灸集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6. 高武. 鍼灸聚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7. 李梴. 醫學入門.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卷六.
8. 郭志蓬. 痧脹玉衡.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5.
9. 李東垣. 東垣醫集.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3.
10. 朱震亨. 丹溪醫案.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3.
11.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譯釋. 丹溪醫論. 1993.
12. 鄭宏綱. 重樓玉鑰.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7.
13. 李學川. 鍼灸逢源.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1987.
14. 裘沛然. 中醫歷代名家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15. 楊繼洲. 鍼灸大成. 大星文化社. 1984.
16. 吳師機. 理論駢文.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4.
17. 夏春農. 疫喉淺論.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1984.
18. 羅天益. 衛生寶鑑.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3.
19. 江瑾. 名醫類案.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2.

### 參 考 文 獻